

“문명적 사유의 잠재력 전체를 상징한다”

책의 존재와 사물의 존재 1 - 책의 두께에 대하여

김상환

연세대 교수 · 철학

“

**책의 두께란 책 안의 현재 속에
책 밖의 과거와 미래가 응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책이 두껍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현재 속에
끌어안고 있는 과거와 미래가 그만큼 두터운 시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그 두께는 단지
과거와 미래를 살아있는 현재 속에 보존하는 그릇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문명 전체를
자기 속에 담아내는 부피로 변해버린다.
문명적 사유란 책이 만드는 두께를 터전으로
하는 사유이다.**

”

렘브란트의 그림에서는 빛이 사물의 내면에서부터 우리나라 오는 것처럼 보인다. 어두움의 밑바닥이 밝음의 원천인 것처럼 보이고, 그림은 마치 세계의 중심에 고여있던 빛이 사람의 얼굴이나 이리저러한 대상의 표면을 통하여 공기 속으로 새어나오면서 그 순간적인 움직임들을 영원의 음각 속에 정지시키는 것처럼 보인다. 렘브란트의 그림 중에 「철학자」라는 제목의 작품이 있다. 이 그림에서는 머리가 하얗게 된 철학자가 밤을 밝히고 있다. 물리적인 인과의 관점에서 보면, 그 밤을 밝게 비추는 것은 분명히 책상 위에 놓여진 촛불이다. 그는 책을 보기 위하여 그 불빛에 의지하여 책상에 몸을 숙인 채 밤을 지새고 있다. 당연한 것이지만, 그가 불을 켜서 밝히는 것은 그 방안의 이리저러한 사물이 아니라 그가 펼쳐는 책이며, 더 정확하게는 그 책 속의 글자와 문장이다.

렘브란트는 왜 책을 두툼하게 그렸는가

그러나 그 철학자의 독서행위는 보다 높은 상위의 광학을 요구하고 있다. 독서란 사실 단순히 외재적 불빛에 의지하는 행위가 아니기 때문이다. 독서는 책 속의 의미를 해독하는 행위이며, 그 안에 빛을 밝히는 행위이다. 촛불이나 램프를 켜는 것은 이 고차적 광학이 실행되기 위해서 부수적으로 끌고 들어오는 여러가지 우연한 사건들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책 속에 숨겨진 의미와 이미지는 읽는자의 내면에서 발하는 빛을 통하여 그 모습을 드러낸다. 그 빛의 원천은 따라서 방안 어느 곳엔

가 켜놓은 불빛이 아니라 눈을 통해서 책상 주변으로 번져가는 읽는자의 사유의 힘이다. 그림 밖에 있는 우리는 그 눈빛을 통해서 그 책의 내면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의 그림에서 철학자는 책을 바라보고 있지 않다. 그의 눈은 어느 곳에도 초점을 두지 않은 채 다만 열려져 있을 뿐이다. 그의 시선이 초점을 맞추려고 애쓰고 있는 것은 그가 앉아 있는 방 안의 어느 사물이 아니라 그의 내면 속에서 태어나고 있는 어떤 것이다. 그의 의식은 자기 속에서 무엇인가를 찾기 위해서 전적으로 자기 안으로 향하여 있다.

여기서 우리는 다시 한번 새로운 광학을 통하여 그 그림을 음미하여야 한다. 그 철학자가 자신의 내면에서 무엇인가를 찾고 모색할 수 있도록 유인하고 인도하는 빛은 어디서 오는가? 이번에도 여전히 그 빛은 책상 위의 촛불에서 오지 않는다. 그것은 이제 그 외재적 빛에 의지하여 철학자가 읽었던 책 속의 문장들이며, 그 읽기에 의하여 밝혀진 그 문장의 의미들이다. 철학자의 시선을 유인하는 빛은 두툼한 책의 두께 속에서 우리나라 오는 것이다. 그 철학자가 눈을 뜨고 밤을 지새우는 것은 그 책에서부터 발하는 빛 속에서이며, 그 그림 속에서 그 철학자의 얼굴이 환하게 광채를 띠는 것 또한 그 책에서 새어나오는 빛 때문이다.

두꺼운 책. 왜 책은 또 그렇게 두툼하게 그려져야 했을까? 이런 물음을 시작으로 어떤 빛의 함유체로서 등장하는 그 책의 두께를 생

각해보자.

사실 두께란 것은 책의 현상학적 본질에 속한다. 책이 먹는 것이거나 숨쉬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쓰고 읽는 것인 한에서 두껍다는 것은 책의 표상으로부터捨像할 수 없다. 물론 이 두께는 다만 어떤 물리적 외형으로서만 생각되어서는 안된다. 이 물리적 두께는 단지 어떤 암시이고 상징에 지나지 않는다. 그 외형적 징표로서의 두께는 우리가 책 속에서 펼쳐지는 사유의 지속을 생각한다면 거기서 이어져가는 개념과 이미지의 연상운동 혹은 그 매개의 폭을 떠올리자마자 즉시 사라져버린다. 여기서부터 생각을 이어가더라도, 책이 한 옛날 언젠가에는 두루말이 형태의 양피지였고 오늘날에는 카세트 녹음기나 컴퓨터로 대체되어가는 추세가 나타나는 것은 한낱 우연한 현상임을 알 수 있다. 책이 네모꼴의 입방체 형태를 띠고 있다는 것도 역시 그것이 목판활자로 찍히다가 레이저 프린트로 찍히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우연에 속할 것이다. 그런 것들은 그릇이 원시시대의 토기에서부터 오늘날의 종이컵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를 띠게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역사의 우연에 속한다. 우리가 생각하여야 할 것은 그러한 우연성을 모두 제거해도 여전히 책의 표상과 하나를 이루게 될 그런 두께이다. 이 두께는 그릇이 어떠한 재료와 형태를 취하건 그것이 그릇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용적에 우선 비교해 볼 수 있겠다. 확실히 책은 그릇과 마찬가지로 어떤 내용을 담을 수 있고 보존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책의 두께란 것은 다만 무엇인가를 담지하고 보존하는 부피에 그치지 않는다. 책은 단순히 어떤 것을 수용하기 위해서 비워둔 특정한 넓이의 용적이 아니며, 그런 한에서 책의 두께는 그릇과의 비교로부터 전혀 설명될 수 없다. 그것은 특히 책이란 것이 자기 외면에서 이미 완결된 것이지만 보존되기 위하여 피난해 온 고정된 장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마 역사에 있어 왔던 책에 대한 오해와 비난은 대부분 이 점을 간과한 데서 비롯되는 것이리라.

앞으로 점점 명확하게 되어가겠지만, 책은 이미 완성된 내용이 다만 자기를 오래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찾아온 피난처가 아니라 오히려 선택하고 유형화하고 체계화하는 언어적 활동의 소산이자 그 가능조건으로 존재한다. 책이란 어떤 사유의 내용이나 이미지들 간의

상호 함축적 관계를 가시화시키고 테두리지어는 활동적 형식이다. 그 형식 안에 담긴다는 것은 그래서 단지 외부에 있던 것이 그곳으로 장소만 옮긴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그 속에서 태어나고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그 안에서 비로소 자신의 모습을 획득하였다는 것을 말한다.

책을 비추는 촛불, 發光하는 책과 문상

역사적으로 볼 때, 책이란 문자언어의 발명에서 비롯되는 문화적 산물이다. 책의 가능성이 문자언어의 가능성에 빛지는 한에서 우리는 따라서 양자의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해야만 하는 경우를 미리 예상하게 된다. 이 점은 우리의 작업 전체를 통해서 탐색의 방향을 결정해주는 지침이기도 하다.

그러나 여기서는 일단 오늘날의 상식에 속하는 언어이론을 머리속에 한 가지 떠올리는 것으로 그치도록 하겠다. 그것은 우리가 어떤 언어적 기호를 이해한다는 것이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관한 것이다. 오늘날의 상식에 따르면 그것은 그 기호가 지시하는 대상을 아는 것만으로는 모두 설명될 수 없다. 어떤 하나의 기호의 의미를 안다는 것은 오히려 그 기호가 다른 기호들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차이를 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서 한 기호를 이해하는 것은 그것이 끌어들이거나 배척하는 다른 기호와의 관계방식을 이해하는 것이며, 그럴 때만 그 기호는 무한히 변화되어가는 경우에 대하여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한 기호에 대한 이해는 그것이 지시하는 대상에 대한 일회적 직관으로 환원되는 것이 아니라, 그 기호가 사용되는 생활세계 전체에 대한 이해로 이어져 간다. 하나의 기호는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반성하거나 공상할수록 점점 넓은 범위의 기호군을 자기 속에 끌어들이면서 그것의 의미가 복잡한 그물망처럼 번지는 기호들 간의 상호지시작용 속에서 획득되는 것임을 깨닫게 해준다.

책이란 것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책은 그 이해가능성을 다른 책들이 만드는 사이사이의 공간에 두고 있다. 책은 다른 책들의 행간 속에서 태어나는 것이며 그 이후의 저술을 담보하는 한에서 그 의미의 두께를 확장해 갈 수 있다. 그 책의 두께는 말하자면 다른 책이 만들어 놓은 높이 위에서 현상하는 것이며, 그 책을 아래에 두고 다시 증가해가는 새로운 책

들의 중량에 의해서 견고성을 획득해 간다. 따라서 하나의 책을 쓰거나 읽는다는 것은 그 속에서 지워져 있거나 흔적으로 남아있는 그 밖의 수다한 책의 무게와 만나는 것과 같으며, 저자가 통제할 수 있는 범위 밖으로까지 이어지는 새로운 글쓰기 가능성과 마주치는 것과 다를 바 없다. 우리가 책의 두께라는 말로 이해해야 할 것은 정확히 하나의 책이 다른 책들과의 관계 속에서 획득하는 이 이중의 역할 가능성이다. 먼저 책은 그에 선행하는 책들에게 그 존재를 빚지는 어떤 所産者이다. 새로운 책은 기존의 책을 자양분으로하여 탄생하며, 기존의 책을 반박하거나 수정하면서 또는 보완하거나 주석을 붙이면서 쓰여진다. 과거의 책은 거기서 완전히 새로 쓰여지거나 재구성되면서도 또한 그 새로운 저작과 재구성을 비로소 가능케 했던 모태인 것이다. 새로이 탄생한 책도 그 이후에 쓰여질 책의 가능성을 자신의 행간 속에 감추고 있는 한에서 자기를 낳게 한 기존의 책들과 마찬가지로 어떤 能産者이다.

책의 두께란 이 능산적 활동과 소산적 활동이 중첩되는 모습이다. 다르게 표현한다면 그것은 책 안의 현재 속에 책 밖의 과거와 미래가 응축되어 있는 모습이다. 책이 두껍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현재 속에 끌어안고 있는 과거와 미래가 그만큼 두터운 시간을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

우리가 책의 두께라는 것을 이렇게 고상하게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 두께는 단지 과거와 미래를 살아있는 현재 속에 보존하는 그릇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서 문명 전체를 자기 속에 담아내는 부피로 변해버린다. 그러나 이것은 틀린 말이 아니다. 문화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책 속에서 태어난다는 것을 말하며 책 속에서 의미를 보존하고 또 그 안에서 자신의 후계를 본다는 것을 말한다. 문명적 사유란 책이 만드는 두께를 터전으로하는 사유이며, 이는 가장 극단적인 허구와 예술적 실험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이다.

이는 여러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할 수 있겠지만, 가령 푸코가 플로베르의 작품세계를 분석하면서 이미 충분히 암시해준 바 있다. 그에 따르면 플로베르의 “상상은 책과 램프 사이에 거주한다. 환상은 마음 속에서 착상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주착없는 자연에서부터 기다려지는 것도 아니다. 그것은 정확성을 띤 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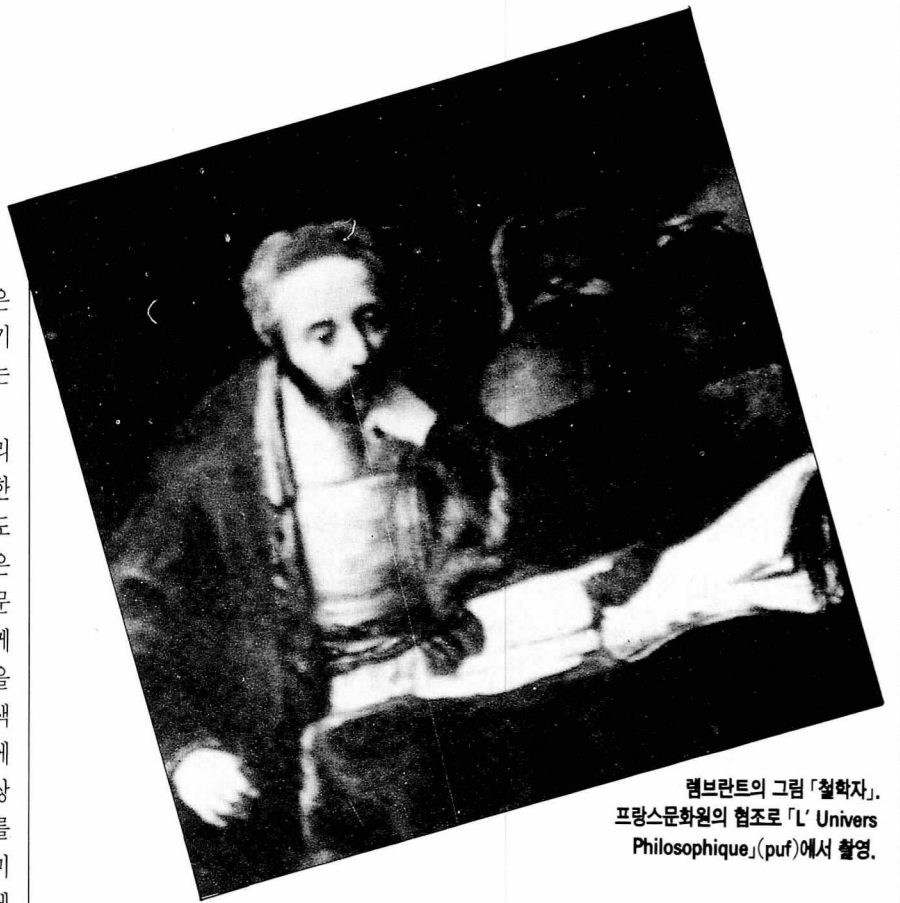
식에서 길어오는 것이다. 그 환상의 풍부성은 문서 속에서 기다려지고 있다. 몽상을 하기 위해서는 눈을 감으면 안된다. 읽어야 하는 것이다.”¹⁾

푸코가 플로베르에게 붙인 이 주석은 우리가 앞에서 언급했던 램브란트의 그림에 대한 주석이 될 수 있겠는데, 이는 그 그림에서도 철학자의 사유를 유발하고 지속시키는 힘은 책으로부터 나오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다. 철학자의 밤을 밝히는 빛은 책의 두께 속에서 발하고 있었다. 책을 읽다말고 시선을 자신의 내면으로 돌려 무엇인가를 찾고 모색하는 그 철학자의 모습은 우리 감상자의 눈에 곧 펜을 들어 자신의 글쓰기를 시작할 저자상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이다. 다시 이야기를 이어가자면, 위에서 인용된 푸코의 말이 의미하는 것은 결국 책의 공간이 자연적 공간에 대하여 점하는 우위이다. 즉 전문적 예술가로서 플로베르의 의식이 자기 정념적 활기를 띠면서 외출하는 장소는 순수한 자연적 사실의 세계도 아니며 순수한 의식 내면적 세계도 아니다. 그의 상상을 유인하는 사실은 타인의 붓끝이나 인쇄매체를 통하여 문명의 질서 속에 편입된 평면적 공간으로부터 현상한다. 읽는다는 것은 철학법과 문법을 통하여 평면으로 드러누워 있어야 하는 사실을 다시 일으켜 세우는 주술행위이다.

‘책의 두께’란 사유와 문명의 부피

여기서 꿈을 꾸며 죽어갔던 성냥팔이 소녀를 생각해보자. 그 소녀는 성냥이 그어지면서 벌어지는 마법 속에서 죽어갔다. 따뜻한 온기와 빛을 발하는 하나하나의 성냥불이 이 불쌍한 소녀의 죽음 속에서 벌어지는 환상유희의 신호였다. 문명 속에 존재하는 사유에서 가장 유희적이고 모험적인 유희는 독서라는 주술행위에서 시작한다. 바로 거기서 문화는 초점을 잃어버릴 정도로 멀리 이르는 상상의 거리를 허락한다.

바슐라르는 문명적 사유의 장소로서의 책의 존재를 ‘書體’라는 말로 지칭한 적이 있다. 그리고 이 명칭은 이상에서 기술된 사태를 보다 극적으로 표현하기 위함이었다: “문화적 힘은 책의 조리정연한 일관성과 유기적 구성을 필요로 한다. 과학적 사유란 어떤 활동적인 책이며, 대담한 동시에 신중한 책, 시험적인 책, 그리고 벌써 사람들이 새 판을 내거나 개



램브란트의 그림 「철학자」.
프랑스문화원의 협조로 「L' Univers
Philosophique」(puf)에서 촬영.

선, 증보, 개작된 판을 내고 싶어하는 책이다. 만일 우리가 현대 과학문화의 특징이라 할 이 연속적 공고화 과정을 망각한다면, 이 과학문화의 심리적 활동을 제대로 가능하지 못하게 된다.

철학자는 현상(phénomène)과 본체(noumène)에 대해서 말한다. 그는 왜 책의 존재, 즉 서체(bibliomène)에 대해서 주의를 돌리지 않는 것일까? ” ‘현상’과 ‘본체’는 칸트의 용어이다. 칸트는 우리의 경험세계를 현상계라 불렀다. 현상계는 사물 그 자체의 세계가 아니라 의식의 구성적 활동에 의하여 이러저러하게 인간의 수준으로 질서잡힌 세계이다. 이 현상 배후의 사물 자체를 칸트는 본체라 했다. 이 본체계에는 시간도 없고 공간도 없다. 그 곳은 어떤 인간적 범주의 질서도 생각할 수 없는, 그래서 단지 X라고만 표기할 수 밖에 없는 불가지한 세계이다. 바슐라르가 말하는 서체(계)란 우리가 손으로 만져볼 수 있는 이러저러한 개별적인 책이 아니다. 그것은 과학·문화적 현상 일반의 배후를 지칭한다. 책의 존재가 문화의 바탕이자 그 실제적 배후가 된다는 것이며, 학문적 창발역량이 담기는 그릇이라는 뜻이다.

다시 말해서 그것은 학문과 문화가 확산시키고 향도하는 계몽의 빛 전체가 사실은 아직도 미지로 남아있는 책의 존재 밑바닥에서, 그 두께의 내면에서 유래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따라서 책이란 문화가 창출한 무수한 생산물이나 도구 중의 하나에 불과한 것이 아

니다. 책은 분명히 문명이 만들어낸 소산자인 동시에 그 문명의 가능성을 담보하고 또 그 잠재력을 창출해가는 능산자이다. 능산적 공간으로서의 책의 부피 속에서 문명적 질서는 잉태되고 보존되는 동시에 재창출된다. 문명의 범위와 그 풀이 형태화되고 개선되는 것은 저작행위가 유도하고 촉진하는 유기적 구성작업과 가시화작업을 통해서이다. 따라서 문화 속에 존재한다는 것, 또는 지성적 표상세계 속에 존재한다는 것은 책의 두께 속에 놓이는 것이며, 책들이 만드는 관념의 질서와 그 질서 속에 허락되는 거주의 공간에 자리한다는 것이다.

충분한 것은 아니겠지만, 이상으로써 램브란트의 그림에서 왜 책이 그토록 두툼하게 그려졌어야 했을까라는 소박한 질문에 답하는 것으로 하겠다.

그 책의 두툼한 두께는 단지 철학자의 내면을 밝히는 빛의 원천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동시에 문명적 사유의 잠재력 전체를 담지하는 부피에 대한 상징이자 그 문명 전체의 밝기를 유지하는 빛의 원천에 대한 상징이다. 그러나 그 두께 자체는 아직도 어둠의 중심에 닿아있는 어떤 심연이다. 우리의 글은 오랫동안 이 심연의 언저리에 머물면서 쓰여질 것이다.

註 1) M. Foucault, La bibliothèque fantastique, in *Tra-
vail de Flaubert* (Paris : Seuil, 1983), p. 106.
2) G. Bachelard, *L'Activité rationaliste de la Physique
contemporaine* (Paris : P.U.F., 1951), p. 6.